

손흥민, 아시아 최초·역대 34번째 'EPL 100골'

손흥민은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의 2022-2023 EPL 30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 전반 10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의 2022-2023시즌 리그 7호 골이자, 공식전 전체 11호 골이다.

2010~2013년 함부르크, 2013~2015년 레버쿠젠에서 뛰며 독일 분데스리가 정규리그에서 41골을 넣었던 손흥민은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로 무대를 옮긴 뒤 리그 100골을 터뜨렸다.

자신의 EPL 두 번째 경기였던 2015년 9월 20일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데뷔골을 넣은 이후 8시즌, 기간으로는 7년 7개월여 동안 토트넘에서 활약하며 100골을 쌓았다.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공식전을 통틀어서는 142골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선제골 이후 전반 동점 골을 내줬으나 후반 34분 해리 케인의 결승 골에 힘입어 2-1로 승리. 리그 4경기 무패(2승 2무)를 이어갔다. 순위는 5위(승점 53)다.

노팅엄 포리스트와의 27라운드에서 EPL 99호 골을 넣은 뒤 2경기에서 침묵을 지키던 손흥민은 어김없이 토트넘의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이반 페리시치의 패스를 받아 아크 왼쪽에서 '전매특허'인 오른발 감아차기로 골문을 열어 대기록을 달성했다. 전반 26분 알렉시스 마크알리스테르의 슈트 때 위고 요리스 골키퍼의 선방이 나오고, 직후 모이세스 카이세도의 중거리 슈트는 골대가 막아주며 연이어 가슴을 쓸어내린 토트넘은 손흥민의 선제골을 오래 지키지 못했다.

파상공세를 이어가던 브라이턴은 전반 34분 솔리 마치의 코너킥에 이은 루이스 덩크의 헤더로 균형을 맞췄다. 후반 34분 토트넘이 다시 앞서가는 한 방을 만들어냈다. 미토마의

때 위고 요리스 골키퍼의 선방이 나오고, 직후 모이세스 카이세도의 중거리 슈트는 골대가 막아주며 연이어 가슴을 쓸어내린 토트넘은 손흥민의 선제골을 오래 지키지 못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지난 몇 주 동안 힘든 순간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감격스러웠다"며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골을 바쳤다.

토요일의 골은 손흥민의 올 시즌 7번째 골로, 지난 시즌 골든 부츠에 걸맞은 23골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두 이탈리아 감독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고, De Zerbi는 경기 전 터치라인에서 Stellini와 대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플레이어로. 특히 나머지 Stellini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De Zerbi와 그가 브라이턴에 도착한 이후 관리한 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결은 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이반 페리시치의 패스를 받아 아크 왼쪽에서 '전매특허'인 오른발 감아차기로 골문을 열어 대기록을 달성했다. 전반 26분 알렉시스 마크알리스테르의 슈트 때 위고 요리스 골키퍼의 선방이 나오고, 직후 모이세스 카이세도의 중거리 슈트는 골대가 막아주며 연이어 가슴을 쓸어내린 토트넘은 손흥민의 선제골을 오래 지키지 못했다.

파상공세를 이어가던 브라이턴은 전반 34분 솔리 마치의 코너킥에 이은 루이스 덩크의 헤더로 균형을 맞췄다. 후반 34분 토트넘이 다시 앞서가는 한 방을 만들어냈다. 미토마의



역습 시도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끊어낸 뒤 손흥민에게 연결했고, 손흥민은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 가랑이 사이로 절묘한 패스를 보냈다. 이를 받아 페널티 지역 안으로 침투한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의 컷백을 케인이 오른발 슈트로 마무리해 결승 골을 터뜨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00골 클럽에 가입한 선수들의 이름값은 그야말로 엄청난데, EPL 최다골(260골) 보유자인 앨런 시어러부터 티에



리 앙리(175골) 스티븐 제라드(120골) 등 내로라하는 전설들이 이름을 올렸다.

Alan Shearer	260
Wayne Rooney	208
Harry Kane	205
Andrew Cole	187
Sergio Agüero	184
Frank Lampard	177
Thierry Henry	175
Robbie Fowler	163
Jermain Defoe	162
Michael Owen	150
Les Ferdinand	149
Teddy Sheringham	146
Robin van Persie	144
Jamie Vardy	134
Mohamed Salah	132
Jimmy Floyd Hasselbaink	127
Robbie Keane	126
Nicolas Anelka	125
Dwight Yorke	123
Romelu Lukaku	121
Steven Gerrard	120
Ian Wright	113
Raheem Sterling	113
Sadio Mané	111
Dion Dublin	111
Emile Heskey	110
Ryan Giggs	109
Peter Crouch	108
Paul Scholes	107
Darren Bent	106
Didier Drogba	104
Cristiano Ronaldo	103
Matthew Le Tissier	100
Son Heung-Min	100

영화 '드림', 홈리스 풋볼 월드컵의 생생한 현장을 담다! 헝가리 로케이션 촬영기 공개!



신선한 소재와 유쾌한 재미로 남녀노소 관객을 사로잡은 이병헌 감독의 신작이자 박서준, 아이유의 첫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드림'이 생애 단 한 번뿐인 홈리스 풋볼 월드컵의 열기를 생생하게 담은 헝가리 로케이션 촬영기를 공개했다. [제공/배

급: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 옥도비시네마 | 감독: 이병헌] '드림'은 개념 없는 전직 축구선수 흥대(박서준)와 열정 없는 PD 소민(아이유)이 집 없는 오합지졸 국대 선수들과 함께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2010년 대한민국이 첫 출전했던 홈리스 월드컵을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된 영화 '드림'이 헝가리 로케이션 촬영을 통해 더욱 생생한 현장감을 담아내 이목을 집중시킨다.

쑤올리스 축구선수 흥대, 열정리스 PD 소민 그리고 홈리스 축구단까지 이유도, 사연도 다르지만 꿈을 향한 도전을 그치지 않는 이들의 종착지인 홈리스 풋볼 월드컵 경기 장면을 위해 제작진과 배우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약 한 달간의 부다페스트에서의 촬영 동안 끈끈한 팀워크를 다진 배우들은 영화 속 점차 한 팀이 되어가는 홈리스 축구단과 같이 더욱 깊어진 호흡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몰입감을 높일 것이다.

특히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배우들의 열연은 유쾌한 웃음뿐만 아니라 가슴 찡한 감동까지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실감 나는 경기 장면을 위한 제작진들의 디테일한 노력 또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그라운드 위의 격한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사전 리허설은 물론 카메라 테스트까지 거치며 경기 장면의 완성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병헌 감독은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액션보다 더 힘든 작업이었고 시간을 들여 공들여 작업을 했다."고 전해 배우와 제작진들의 뜨거운 열정이 집약된 헝가리 로케이션 촬영 장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처럼 배우와 제작진들의 열정으로 손에 땀을 쥐는 재미를 예고한 '드림'은 올봄 신선한 재미와 국가대표급 연기 앙상블로 극장가를 사로잡을 것이다.

이병헌 감독과 박서준, 아이유를 비롯해 캐릭터와 완벽한 싱크로율의 국대급 배우들의 조합이 더해진 영화 '드림'은 오는 4월 26일 개봉을 확정하며 올봄 극장가 최고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만식/기자

더 크게 들었습니다. 더 깊게 보았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2023. 4. 6. (목) ~ 4. 19. (수) 14일간

용인특례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라이브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https://council.yongin.go.kr>

광명시·광명소방서 합동 화재취약시설 예방 캠페인 실시

봄철 화재취약지역 예방캠페인 '안전해서 좋은 날'



광명소방서(서장 박평재)는 4일 광명시청과 협력하여 화재 취약시설 4개 권역(육길동, 광명동, 노은사동, 가학동 일원)을 방문, 해당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화재 취약 요인 점검 및 홍보물 전단지 배부를 실시했다.

4계절 중 봄철 화재 발생은 광명시의 경우 23년 3월말 평균 43건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화재규모도 대형화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4월1일~4월10일(10일간) 청렴·한식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지정하여 대형산불 등 화재예방 순찰과 현장대응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공장,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잦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광명시 취약시설 현황으로는 공장, 창고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총 4,119동이 확인되며, 광명소방서는 광명시와 합동으로 화재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여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화재예방을 실현하고자 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시청, 소방공무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원 등 총 90여명이 참여하여 취약시설 곳곳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 및 전단지를 배부했으며, 화재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발생시 신고 및 대피요령, 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했다.

박평재 서장은 "화재취약시설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자분들은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대비로 소방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특별 예방교육' 강화

마약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 특별점검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신종 마약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서울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일상·특별 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각급 학교에 '2023학년도 학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안내 한 바 있다. 이번 사건 발생 후 각급 학교에 2023학년 1학기 중으로 학생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4월 6일 권고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5월에서 7월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마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신종마약 특별예방교육'을 마약퇴치본부와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교

직원 대상으로는 △신종 마약류 안내 △학생 지도 방안(6차시) 등 교원이 마약 예방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내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최근 마약범죄가 발생한 강남일대 학원가, 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함혜성)은 4월 2주간 마약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경찰청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유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범죄를 예방토록 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광수/기자



경북소방본부, 제12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 대학·일반부 13개팀, 학생·청소년부 11팀 총 24개팀 150명 참여
- CPR 다문화 고부열전·이서고등학교 청심환 팀 대상 수상, 6월 전국대회 경북대표 참가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안동 씨애포호텔에서 24개팀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2회 경상북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초 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로 생명중증문화 확산 및 심폐소생술 시행을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도내 심폐소생술 시행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일반부 13개팀 72명, 학생 등 청소년부 11개팀 78명이 참여했으며, 심정지 발생 상황 및 짧은 존극을 무대에서 표현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경연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도내 심폐소생술 시행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일반부 13개팀 72명, 학생 등 청소년부 11개팀 78명이 참여했으며, 심정지 발생 상황 및 짧은 존극을 무대에서 표현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경연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번 무대에는 실감나는 각종 소품과 이색적인 캐릭터를 등장시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열정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줬다.

대학생·일반부 대회에서는 '베트남에서 시집은 머느리가 갑자기 쓰러진 시어머니를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다'라는 주제로 경연을 펼친 청

도 다문화 이웃으로 구성된 'CPR 다문화 고부열전'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학생·청소년부 대회는 소싸움 관

람 중 심정지가 온 상황을 촌극으로 준비한 청도 이서고등학교 '청심환' 팀이 심사위원으로부터 무대 표현의 완성도와 독창성, 심폐소생술 시행 등 합산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CPR 다문화 고부열전'과 '청심환' 팀은 오는 6월 22일 세종에서 열리는 제12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경북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은 코로나 이후 처음 개최된 행사로 참가팀의 열정과 공감이 넘치는 성공적인 대회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심폐소생술 시행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일반인이 참여하는 교육과 경연대회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관악구,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위해 지원금 지급

관악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며,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고용유지를 위해 신규 채용 인력 1명당 월 10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며,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신규인

력을 채용해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주이며, 지원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달 30일까지,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구청 지하1층 일자리 카페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구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또는 관악구 홈페이지 뉴스소식을 확인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피로함과 어려움이 누적된 구민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관악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금천구, 전국 최초 전력·통신·앱 기반 'AI 안부든든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전력·통신·앱 기반으로 대상자 위기 신호 감지, 24시간 긴급출동까지

금천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력·통신·앱 빅데이터 기반의 안부확인 서비스인 'AI 안부든든서비스'를 이달부터 추진한다.

'AI 안부든든서비스'는 금천구를 포함한 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전력 사용량, 통신 빅데이터, 감지 앱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대상자의 위기 신호를 감지

하고, 24시간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금천구는 가산동, 시흥1동, 시흥5동 3개 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해 지난 3월 고독사 위험군 200가구를 선정했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4월 6일 서울시 복지재단, SK텔레콤, 한국전력,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AI 안부든든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정책

적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금천구는 최근 급증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50대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1가구 1안전망 연계', 고독사 위험군 1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AI스피커 사업' 등 틈새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AI 안부든든서비스' 시범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총출력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사업이 향후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훌륭한 모델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환성/기자



송파구, '구민은 민원인 아닌 주인!' 민원행정 다짐 결의

송파구는 지난 3일 민선8기 첫 번째 새봄을 맞아 민원실 전 직원이 참여하여 민원행정 다짐을 결의하고, 원스톱 민원실을 구민 눈높이에 맞춰 새 단장했다고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민선8기 취임 후 지시사항 1호로 지난해 10월 구청 인허가민원을 원스톱 관리하는 '민원처리팀'을 신설하고, 서울시 최초로 '여권과'를 별도 신설하여 수준 높은 구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스톱 민원실'을 운영한 지 6개월차를 맞아 민원실 내방 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7%가 원스톱서비스에 만족한

다고 응답해, 성공적인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알렸다.

지난 3일, 송파구 민원실 전 직원은 '구민은 민원인이 아닌 송파구의 주인'이라는 슬로건 하에, '친절, 창의와 혁신, 공정'으로 민원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새 봄을 맞아 구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실로 새 단장했다.

우선, 민원실 계단 입구에 성인 눈높이에 맞춘 대형 스탠딩 배너를 설치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435종의 인허가 민원 업무를 종류별로 찾아가기 쉽도록 대형 배치도 그림을 게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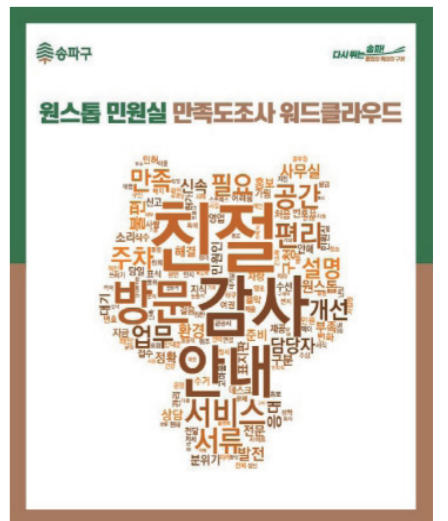
민원창구 이름표 교체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한 배려다.

어려운 법정 민원명이 아닌 구민들이 주로 편하게 쓰는 민원 업무 명칭을 표기한 민원창구 이름표 변경으로, '이용자 중심'의 섬김 행정을 실현했다.

아울러, 전 직원이 밝은 근무복을 착용하기로 했다. 송파 행정의 얼굴인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복 착용으로 활력이 넘치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구민에게 보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식/기자



오산시 곳곳에서 봄맞이 대청소 나서

봄을 맞이해 오산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고 있다.

먼저 지난 4일 오산시 신장동 통장단협의회와 신장동 직원 총 80여명이 참여해 평소 환경정비가 어려운 철도 주변과 빌라 인근 공터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와 불법 투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김용섭 신장동 통장단 협의회장은 "봄맞이 대청소를 통해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신장동 통장단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오산시 초평동은 주

민자치회, 통장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체육회 등 동 7개 단체 연합회원 총 50여 명이 참여해 세교 2지구 개발 예정지와 내대지 등을 순회하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날 치운 쓰레기는 약 2톤에 달했다.

심연섭 초평동장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여해 주신 7개 단체장 및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로 인해 더욱 깨끗한 초평동 환경이 조성됐을 뿐만 아니라 단체간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초평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7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양시현기자

광명시, 보건 의료시설 확충 등 보건분야 공약사업 본격화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광명형 스마트헬스케어사업 등 본격 추진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등 민선8기 광명시 보건분야 공약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광명시는 올해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에 17억 4천300만 원, '광명형 스마트헬스케어사업'에 15억 4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 보건 분야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후면에 건립을 추진 중인 감염병대응센터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돼 오는 2025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감염병대응센터가 개소하면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예방 및 선제적 대응 능력이 대폭 강화돼 시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산권역과 소하권역에 새롭게 설치 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이르면 올해 안에 문을 열 전망이다. 지난 2021년 착공한 철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내에, 2022년 말 공사가 시작된 소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하동 노인건강케어센터 내에 각각 조성 중이다.

스마트헬스케어사업은 시민들이

ICT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높여 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보건 의료 취약자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건강을 챙기는 'AI케어콜 건강관리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스스로 건강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헬스존'도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6개월 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광명시는 7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 19명을 표창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코로나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신 보건 의료 분야 종사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광명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김동연지사, 경기도청 봄꽃축제 찾아도민·소상공인과 소통

-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펼쳐지는 경기도청 봄꽃축제 4년 만에 7~9일 개최
- 김동연 지사, 8일 소상공인 운영 부스 방문 격려, 봄꽃축제 청년봉사자, 소상공인과의 소통의 시간 가져

벚꽃 명소로 알려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일원에서 '경기도청 봄꽃축제'가 4년 만에 열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제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8일 구청사 잔디광장에서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팔달산상인회 등 소상공인 6명과 간담회



를 갖고 봄꽃축제와 함께 구청사와 도담소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상인들은 상권 침체를 토로하면서도 이번 축제에 기회를 주어 감사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다시 일어나시도록 기

운 내시고 저에게 계속 의견을 달라"며 "경기도에서 옛 청사를 사회혁신복합단지로 만들어 사무실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축제 운영 경기도 청년봉사단을 격려하고, 잔디광장에 펼쳐진 각종 체험형 부스,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판매



전시 부스와 농협 직거래 장터를 도민들과 함께 경험했다.

한편 7일 시작된 이번 축제는 9일 오후 7시까지 계속되며 다양한 체험 판매 부스와 문화공연,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친환경 축제를 표방해 먹거리장터 미운영, 행사장 내 1회용품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 권장 등을 실시한다.

조혜영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7일 농협 경기본부 신축 기공식 행사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일대에서 진행된 '농협 경기본부 신축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을 여는 경기본부 식축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현 부지에 1989년 경기농협이 들어섰었는데, 오늘 34년 역사를 뒤로하고 농협의 새로운 내일의 기반을 닦는 기공식을 갖게 돼 더욱 뜻깊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변모할 농협 경기본부는 경기농협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의 새 시작을 이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기본부 100년 농협의 새 기반으로서 농민과 국민에게 사랑받으며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경기도의회 김판수 부의장(더민주, 군포4), 김성남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재준 수원시장, 김승원·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교육청, 시멘트 공급 대책 논의 신설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최우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신축 공사현장의 시멘트·레미콘 수급과 관련해 관계 부서 및 교육지원청과 긴급회의를 갖고 예정된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와 시설과는 지난 5일 11개 교육지원청(용인, 안양과천, 평택, 화성오산, 광주하남, 김포, 시흥, 의정부, 동두천양주, 고양, 구리남양주, 파주) 관계자 50여

명과 함께 자체수급 부진에 따른 신설학교 추진 관련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시멘트·레미콘 수급 상황 점검과 개교예정 학교의 공정을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특히 레미콘 수급 문제로 신설학교 공사가 원활하지 못한 만큼 공사 일정에 맞춘 물량 공급·확보를 위해 레

미콘을 사급사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해당 지역 레미콘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교육지원청별 자구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단위에서도 경기지역 레미콘협동조합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예산은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일~12일로 예

정된 규모별 교육장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상황을 반영한 대책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학교설립기획과 한근수 과장은 "시멘트 수급이 원활치 않아 학교 공사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적기개교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용인특례시] 양지면, 9회 교동의날 봄나들이 행사 개최

지난 8일 양지면 교동마을은 교동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교동새마을회 주관으로 양지리, 6리, 7리, 8리, 13리 교동청년회, 새마을회, 교동노인회 후원으로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날 봄나들이는 오전 양지를 출발해 안동의 유명 한우식당에 가서 육회와 불고기 식사를 한 후 시작되었다.

이날 나들이는 낙동강 물 휘도는 하회마을과 안동포 체험장 및 튜링축제장으로 정했다.

하회마을은 안동의 민속촌으로 옛 모습 그대로인 초가집과 기와집으로 구성된 실지로 생활하는 마을로 볼거리가 많아 보는 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특히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낙동강 푸른 물줄기를 따라 걷는

길은 아름다웠다.

안동포타운 전시관은 전시관람장과 세 개의 주제 체험장으로 안동포의 공간 연출과 다양한 직,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전통과 우수성을 느껴볼 수 있었다.

또한, 김포 관광객은 옷감의 주름을 펴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방망이를 두들기면서 옛기억을 떠올리며 즐거워했다.

전날 봄비가 많이 내려 벚꽃은 다 떨어졌어도 안동 튜링축제 꽃들은 흰색, 빨강, 분홍빛의 찬란하고 고운 빛을 발산하여 관광객의 눈길을 끌어 기념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한편 함께 참석한 5개리 마을 이장들은 봄바람이 불어 날씨는 조금 쌀쌀했지만 아무 사고 없이 즐겁게 주민화합을 위해 함께하신 주민분께 감

조혜영기자



사하다고 전하였다.



건강 지키며 안전하게 “농사”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근골격계 프로그램 교육 시행)



영양군은 12명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신규 1리 사과작목반을 2023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4월 5일부터 근골격계 프로그램 교육 8회, PAOT(참여형 농작업 환경개선교육) 1회를 진행한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농업인 안전관리 근골격계 프로그램 교육, PAOT(참여형 농작업 환경개선교육), 전문기관 컨설팅, 안전장비 보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농업인 안전관리 근골격계 프로그램은 농업인들을 위한 골밀도 측정과 소근육 및 뇌신경을 자극해 주는 풍선아트, 부위별 근골격계 테이핑 치료, 세라밴드 교육, 농작업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법 실습 등으로 진행되며, ▲전문가 컨설팅은 작목별 작업 분석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수립 ▲개선도입 및 평가의 단계로 이뤄져 작업 단계별 위험도 분석을 통한 안전장비를 보급

한다.

참여형 농작업 환경개선(PAOT)교육은 농기계 안전, 농작업 환경관리, 일과 휴식의 분담, 기초 안전관리 등을 주제로 한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농작업 환경개선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진행됐다.

신규 1리 사과작목반 이유춘 회장은 “우리 작목반 회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다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길 바란다”며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 가족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했다.

이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들에게 농작업 안전에 대한 의식과 안전관리 실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농업인 스스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작업능률도 향상시키고, 교육에서 배운 운동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농사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우리 마을에도 봄이 찾아왔어요

진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지난 7일(금.) 3~5세 유아 44명을 대상으로 국가민속문화재인 “송소고택”을 방문하여 마을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유아들은 사전활동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송소고택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재의 의미와 소중함을 이야기 나누었다.

송소고택을 직접 방문한 유아들은 벚꽃과 다양한 꽃, 곤충들을 관찰하며 봄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다양한 봄꽃을 관찰한 유아들은 “꽃 이름이 뭐예요?”라고 호기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민가로서 최대규모인 송소고택을 둘러보며 옛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경험해보고 “방이 정말 많아요.”, “집이 이렇게 크면 유치원 친구들 모두 초대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유치원까지 옛날 집 만들 거예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귀구 교장은 “지역사회의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마을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경험하고, 마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꼈으면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세계교육의 표준을 향해도약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 및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학교 교육 논의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양일간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유·초등 교육전문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의 기본 방향 정립 및 미래 교육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주제로 운영된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 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교유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사고를 확장해 가는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한다.



이번 연수는 깊이 있는 학습의 바탕인 개념기반 학습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고, 교육전문 직원으로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

했다.

또한 최근 교육계 및 사회 전반에 이슈로 떠오르는 ‘CharGPT’ 등 한 걸음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에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현재의 교육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각종 행정업무 처리 등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으로 생기는 통증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등 건강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포함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초등 교육전문직원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 미래 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새로운 교육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경북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의 힘으로



울진군은 지난 7일,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장태운) 주관으로 ‘제61회 경북도민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도민체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한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공연, 결의문 낭독, 성공기원을 위한 퍼포먼스,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자원봉사현장 유의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는 4월 20일 개막부터 24일 폐막

까지 울진 전역 31개 경기장에서 개최식 행사지원, 경기장 안내, 경기 운영지원, 선수단 환영, 질서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인원 61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예정이다.

장태운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경북도민체전은 12년 만에 울진에서 다시 열리는 대회로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울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민체전이 성공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도민체전은 군부 최초로 2번째 개최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더불어 수소산단 유치로 우리군 번영의 시작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회다”며, “자원봉사자의 힘과 역량으로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장원화/기자

대구북구새마을회, ‘대구로’ 캠페인

대구북구새마을회는 4월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로택시 이용 홍보 캠페인을 북현오거리에서 추진했다.

대구로 택시는 대기없이 택시 호출 플랫폼의 시장 독식을 막고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택시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12월 22일 도입된 것으로 현재 일 호출건수는 대당 4.5건 정도이다.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면 이용자에게는 호출료 무료, 대구로 마일리지 사용 가능, 안심귀가서비스, 제3자 택시지원서비스의 혜택이 있으며, 택시종사자에게는 수수료 6개월 무료(이후 최대 월3만원)의 혜택이 있다.

북구새마을회에서는 4월 6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북현오거리에서 회원들이 현수막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출근길 시민들에게 대구로택시를 홍보하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정연식 회장은 “지역자본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마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통영시, 2023년 신활력플러스 지속가능한 농촌관광포럼 개최



통영시는 지난 6일, 스탠포드 호텔 엔리조트 세미나 룸에서 ‘2023년 신활력플러스 지속가능한 농촌관광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국에서 초빙된 외부전문가(농부와협동조합 조준환 대표 외 3명)으로부터 어린이 체험교육, 치유농업, 농촌체험을 주제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22년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던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대표들의 생생한 사례 발표 및 토론

이 이어져 통영 농촌관광의 문제의식 도출 및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특화된 콘텐츠 개발로 ‘통영다움’의 이미지 확립과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포럼을 주최한 최광수 통영시신활력추진단장은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선진사례를 공유하는 교육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며 “신활력인 조직 및 신활력 영

업(Young Up) 5팀 양성 등의 사업 추진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청년들의 농촌 진입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남승현 미래농업과장은 “누구나 찾고 싶은 통영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농민들의 마인드 교육을 시작으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힘쓸 것이다”며 “농가와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통영 농촌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민관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준/기자

안동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쾌거

– ‘2022-2023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 권기창 시장, “츄츄한 복지안전망 구축, 복지사각지대 지원에 최선” 약속해

안동시는 겨울철(2022년 11월 ~ 2023년 2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추진단을 운영해 유류비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아무런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던 1인 노인가구를 발굴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조하여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복지전문번호를 부여받아 공적급여 신청 및 책정을 했다.

이후에도 지역주민과 개인 후원자를 연계하여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사례가 높이 평가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사례로 뽑혔다.

시는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을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지원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유관기관들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거나, 취약계층에게 기부물레이를 실천함으로써 나눔문

화를 크게 확산시키는 등 민관 협력을 긴밀히 하여 시민들의 시민 복지 증진에 노력해 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앞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숨어있

는 복지사각지대를 신속하게 찾고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비엔날레 함께 보고 느끼고 즐겨요”



“세계인의 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누구나 찾아와 함께 보고 느끼며 즐기시길 바랍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7일 지역 핵심 현안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성공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서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1995년생인 광주비엔날레는 이제 28살 청년의 시기를 맞았다”며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 행사이자 세계 3대 비엔날레로 성장했다”고 광주비엔날레를 소개했다.

이어 “올해 비엔날레는 본전시 외에도 9개 국가의 파빌리온이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다”며 “94일 동안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와서 즐겼으면 한다”고 초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전부지 선정과 종전부지 개발 문제가 남는데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에 큰 힘을 얻는다. 언젠가지만 광주의 든든한 빛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송갑석·정경래·고민정·박찬대·장경태·서은숙 최고위원,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수/기자

강진원 강진군수, 성남시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과 면담 가져

“작은 도시의 큰 변화 위한 4차산업혁명 활용 적극 모색”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청을 방문해, 성남시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을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4차산업혁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성남시의 기술과 경험을 교류하고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 및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을 출범하고, 공공서비스 분야 혁신을 목표로 ‘5개년 종합계획(2023~2027)’을 추진하는 등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면담은 전남 강진군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최초의 접촉으로 임한다. 면담에서, 다가올 미래는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비전에 대해 양 지자체가 뜻을 함께한 가운데, 성남시는 강진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4차산업혁명’에 관해 성남산업진흥원을 통한 적극 협력 의사를 알려 왔으며, 강진군은 상호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은 “성남시

는 판교의 기술과 자본, 정보라는 인프라가 있어, 4차 산업 혁명을 행정에 적용하는데 이점이 있지만, 작은 도시 강진에서의 관련 시도는 고무적”이라며, “성남산업진흥원과 함께 강진의 4차산업혁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군은 작은 도시이지만,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큰 변화를 이뤄갈 것”이라며 “성급하게 성과를 쫓기보다 과도기에 있는 기술 접목을 위해 사전 조사와 학습 과정을 충분히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7월, 전남 최초로 4차산업혁명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며, 4차산업혁명 전략수립위원회, AI군정뉴스 제작, 챗GPT 1.2차 시연회 개최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군은 앞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정에 선제적으로 접목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의 소득창출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추윤호/기자

전남교육청, 고교학점제 대비 ‘꿈키움캠퍼스’ 운영

전라남도교육청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대비해 올해도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인 ‘꿈키움 캠퍼스’를 운영한다. ‘꿈키움캠퍼스’는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선택과목 및 전문교과를 고교-대학이 연계해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지난해 도입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전남·광주 지역 등 7개 대학(광주교대,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 조선대, 청암대, 한국외대) 및 지역 기관(지리산생태탐방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과 연계해 올해도 ‘꿈키움캠퍼스’ 운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강좌는 지난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 선호도가 높은 35개를 개설했으며, 운영시기 및 개설 과목의 특성에 따라 온·오프라인 또는 합숙형 실기 집중과정으로 진행한다. 2023년 제1기 꿈키움캠퍼스는 6강좌에 29교, 74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해 4월 10일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2022년 ‘꿈키움캠퍼스’는 총 4기로 나눠 운영됐으며 전남·광주 지역 9개 대학과 연계해 개설한 57개 강좌에 도내 68개 고등학교, 805명의 학생이 참여해 과정을 이수했다. 참여 학생 대상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좋음’ 73.8%, ‘좋음’ 23.1%로 나타났다. 특히 방학 기간 대학에서 운영한 합숙형 실기 위주 강좌가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품 장흥, 웰니스 관광 시대 연다”

청정 자연과 치유의 인프라 활용한 웰니스 관광 추진

장흥군이 ‘치유와 힐링’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에 행복(happiness)과 건강(fitness)을 합쳐 만든 용어다. 웰니스 관광은 치료 목적의 의료관광과 달리 건강한 일반인이 여행을 통해 지역적인 색다른 경험을 하는 치유관광을 말한다. 장흥군은 지역 최대의 장점인 청정 자연과 치유의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관광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웰니스 관광에 집중하기로 했다. 장흥은 산과 들, 강과 바다가 조화를 이룬 지역이다. 1급수 수질을 자랑하는 ‘탐진강’은 장흥군 중심을 관통하고 있어 지역민에게 건강 습터를 제공하고 있다. 장흥군 대표 관광지인 편백숲 우드랜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했다. 최근에는 천년 전통을 이어온 발효차 청태전과 선종 9산문의 천년고찰 가지산 보림사를 활용한 명상치유관광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흥의 생태환경을 활용한 치유관광, 미래바이오생명자원의 대체의학



드랜드 숲 치유와 연계해 ‘마음 씬’을 모토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장흥군은 2022년 9년 만에 국제슬로시티 지위를 회복하면서 삶의 여유와 균형을 갖춘 국제 힐링 도시가 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어머니 품 장흥은 웰니스 관광시대에 적합한 건강과 치유의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현대인들이 편안히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구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선배에게 배우는 농업 노하우”

토마토, 복숭아 등 지역특화작목 학습동아리 7개 회 활동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특화작목의 전문기술 습득과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학습동아리는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5명 이내로 자율적으로 모임체를 조직하여 연구하고 학습하는 직원역량강화 활동으로 올해는 7개 회 38명이 참여하고 있다. 학습동아리는 농촌지도사의 역량 강화 및 영농현장 기술지원 능력 배

양을 위해매월 1~2회 과제교육, 현장실습 및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여 작목별 업무관련 전문지식과 선배지도사로부터 농가 기술지도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공부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류창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규공무원의 역량 및 전직원 농업기술 전문능력 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촌지도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윤경호/기자

구례군, 전국 최초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 개최



전남 구례군은 4월 7일 구례군실내체육관에서 전국 최초로 ‘2023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 강기갑 전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심상택 국장 등 내빈과 농민단체,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흙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들의 흙과 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호소문 낭독과, 탄소중립의 흙 살리기 선언문을 발

표하며, 탄소 절감과 생태농업 실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올 10월에 개최되는 흙 살리기 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제녹색휴머니티 박창수 총재와 류재춘 K-수목화가를 구례군 흙 살리기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군은 거대한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는 흙을 살리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며,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탄소 절감의 첨병 역할을 하는 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흙의 소중함과 미래의 농업 방향 교육, 흙 살리기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개최, 흙 살리기 발전계획 수립과 시책 발굴 등 다양한 흙 살리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탄소중립 달성이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자연을 보존하며 소득을 올리는 지속 가능한 생태경제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제일의 생태도시 구례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영광군 3월 말 기준 인구 작년 대비 61명 늘었다

영광군이 지난 3월 31일 기준 인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인구 수가 2022년 말 기준 52,197명 대비 61명이 늘어난 52,25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구 자연 증감을 살펴보면 3월 말까지 92명이 출생하고 217명이 사망해 125명이 자연 감소했고, 사회 증감에서는 영광군으로 488명이 전입하고 384명이 관외로 전출해 104명이 순증했다.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출생이 감소하고 있는 이 시기에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16,109명으로 전체 인구의 30.83%를 차지하는 영광군의 인구구조 상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영광군은 청년 일자리 장려금, 결혼장려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신생아 양육비, 아바 육아휴직 장려금,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인재육성 장학금, e-모빌리티와 운영 등 일자리→결혼→출산→보육→교육으로 이어지는 생애 전반에 걸친 선순환 지원책을 펼침으로써 출생을 늘리고자 노력한 끝에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했고, 혼인 건수도 3월 말 기준 62건으로

전년(2022년 3월 31일) 32건 대비 30건이나 증가했다. 또한, 강종만 군수를 필두로 각종 유관기관 및 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 공세를 펴 영광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43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종만 군수는 “인구감소는 영광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부터 기초 지자체까지 모두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고민하여 타 개책을 찾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혹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추세일지라도 우리의 고향, 우리의 주민을 지키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끊임없이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대순/기자



전남 고교학점제 꿈키움캠퍼스. 전남·광주 등 7개 대학 - 35개 강좌 개설. 2023년 개설 강좌 안내. QR CODE. 문의전화 061-260-0551. Website: dreamcampus.kr

“부산엑스포 유치만큼 강원특별자치도가 절실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자치도법 개정 정부 협조 강력 호소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4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여 강원도 방문을 건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전국 시·도지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진 외교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국 4대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날 회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현지실사 기간(4. 4. ~ 6.)에 맞춰 개최하여, 중앙-지방정부의 원팀 의지를 표명하고 범국민적 유치열기를 고조하기 위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방안' 원포인트 안건 회의로 개최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2018 평창올림픽을 치렀고 내년도 동계유스올림픽을 준비 중"이라며 강원도의 국제행사 유치 경험을 강조하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국제행사는 자원봉사자가 중요하다. 평창올림픽 때 자원봉사자가 2만 명이었는데, 아마 부산에서는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자원봉사 운영 노하우를 전달하겠으며, 필요하면 직원을 부산으로 파견해서라도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라고 부산엑스포 유치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김진태 지사는 부산엑스포 유치 안전에 한정되어 진행된 토론임

려도 불구하고 "강원도 헌안에 대해 조금만 말씀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딱 2달 남았다. 이번 달에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야 5월 본회의를 통과해서 6월 11일 출범한다"라고 하며, "행안위를 넘으려면 정부 부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회의는 지방보조금의 지속적 확대와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교육뿐만 아니라 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 공모사업자 선정 절차, 보조금 집행요령, 정산방법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또한, 보조금 부실집행, 관리 소홀, 잘못된 회계 관행 등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감사 지적사례도 소개했다.

시는 지방보조금 효율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보조사업 담당 부서 및 예산 부서 자체 평가로 진행되던 성과평가를 올해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평가 대상은 2022년도 전액 시비인 총사업비 2억 원 이상 투자사업,

이동원/기자

태백시,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교육 실시

태백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보조금의 지속적 확대와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교육뿐만 아니라 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 공모사업자 선정 절차, 보조금 집행요령, 정산방법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또한, 보조금 부실집행, 관리 소홀, 잘못된 회계 관행 등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감사 지적사례도 소개했다.

시는 지방보조금 효율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보조사업 담당 부서 및 예산 부서 자체 평가로 진행되던 성과평가를 올해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평가 대상은 2022년도 전액 시비인 총사업비 2억 원 이상 투자사업,



행사성사업 및 전액 시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379개 사업, 343억2천5백만 원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성과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춘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500명 대상 복리후생비 지급

춘천시가 청년근로자 500명에게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100만원의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사업 모집이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사업에 1,925명이 신청했으며, 1차 501명, 2차 401명에게 지원했다.

올해 대상자는 500명이며, 자격은 공고일(2023. 4. 3.) 기준 만19세~39세 춘천 주민 등록자다.

또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입사하여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으며, 주 36시간 이상 근로 상용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월 9만6,150원 이하)다.

신청은 모바일 앱 '우리도'를 통해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16일 발표된다.

복리후생지원금은 생애 1회 지원되며, 50만원씩 2차로 나누어 지급된다. 1차 지급은 5월 19일 예정이고, 2차 지급은 근무지, 주소지 자격유지 여부 확인 후 10월 중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사업은 청년근로자의 건강과 여가활동,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2040 탄소중립포럼 원주'

제15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2040 탄소중립포럼 원주'가 11일 오후 2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L층 로비에서 열린다.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원주시가 주최하고 원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공동 주관한다.

원주시의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 및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대화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원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 고상백 공동대표의 개회사와 제15회 기후변화주간 프로그램 안내 등 기념식을 시작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본 원주의 탄소중립 방향'에 대해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유경 팀장의 기초 강연이 진행된다.

2040 탄소중립 포럼 원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론과 2차원 시공간에서 생기는 다양한 물리현상 소개

- 14:00 기쁜 날 만남
- 14:10 기념식
- 14:20 강연
- 14:30 질의응답
- 14:40 폐회

장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L층 로비

문의: 2023년 4월 10일(수) 19:00 ~ 21:00

주최: 원주시

주관: 원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

후원: 원주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QR 코드

또한,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본 탄소중립'을 주제로 원주지역 청년 박서현, 원주명륜종합사회복지관 최미정 대리, 원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 제정수 사무국장의 발제와 포럼 참석자가 직접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은 원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 제정수 사무국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정우 ESG과장과 김민희 기후강사가 토론자로 나서 시민들과 함께 원주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특히,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 생태교통을 이용한 참가자들에게는 탄소중립 기념품을 증정한다.

김정환/기자

양양군 손양면이장협의회, 새봄맞이 자연정화활동

양양군 손양면이장협의회는 7일 오전 9시, 생동하는 봄을 맞아 양양 남대천 하구에서 '봄맞이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손양면이장협의회는 양양군의 주요 생태지역인 남대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봄맞이 국토 대청결운동'에는 손양면이장협의회 이장단 및 손양면 사무소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남대천 하구(낙산대교 일원)의 폐비닐, 농약병, 폐영농자재 등 영농폐기물과 어업폐기물을 일제히 수거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처음으로 남대천 하구의 퇴적지형(섬)에 들어가 자연정화활동을 펼쳐, 섬 지역의 오래 묵은 쓰레기들을 처리하기도 했다.

김승수 협의회장은 "새봄을 맞아 실시한 국토대청결 운동을 통해 남대천의 생태 보존과 쾌적한 관광 이미지 제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청정 양양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강릉시, 기부하고! 신선한 개두릅 맛보며 바다 향기 만끽하세요!

강릉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이달에만 한시적으로 맛볼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을 포함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담레품을 추가 선정하면서 기부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담레품으로 추가된 '강릉 개두릅'은 임산물 지리표시 제41호로 등록되어있는 강릉의 대표적인 봄철 산나물로 짧은 기간에만 맛볼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강릉 개두릅'은 지난 6일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 처음 공개되자마자 큰 호응을 불러일으켜 기부자들의 많은 선정을 받고 있으며, 향후 약 3주 동안 채취되어 신선함을 담아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수확 및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못난이 감자를 적극 활용하여 강릉산 감자에 새로운 맛과 멋을 부여한 상품인 '포파칩' 또한 새로운 담레품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강릉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미역, 사과, 오징어, 말린생선세트 등 각종 지역 특산품뿐 아니라, 강릉를 직접 방문하여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각종 이용권도 추가된다.

탁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어디서든 자유롭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강릉 워케이션 서비스(일로오션) 관광상품을 비롯하여 연곡솔향기캠핑장 이용권, 강릉오죽한옥마을 숙박권 등이 기부자들의 발길을 강릉으로 이끌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강릉시 담레품선정위원회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담레품 15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43개의 담레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 외의 모든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액공제(10만원까지 100%/10만원 초과 16.5% 추가)와 더불어 기부금의 30%가량의 담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 강릉의 로컬 콘테츠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상품 등 체험형 담레품 선정으로 강릉을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Goyang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

생활 속의 꽃 Flower in the Life

주최: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제35대 우경수 보은군 부군수 취임 100일... 군정 발전 디딤돌



지난 1월 1일 제35대 보은 부군수로 취임한 우경수 부군수가 오는 10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1월 1일 취임사를 통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 건설을 위한 최재형 군수님의 민선 8기 군정 목표 실현에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저의 모든 정열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한 우 부군수는 동료 공직자 및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다.

취임 후 빠른 군정 파악으로 내부 행정을 아우르는 동시에 군민의 숙원 사업과 대형사업장 등 군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발표를 아끼지 않는 행정으로 군정 운영의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농업 혁신단지 조성, 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보

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굵직한 대형사업들을 비롯해 인구 늘리기 등 각종 주요 현안 사업과 당면과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시로 챙기면서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수한면 오정리 출신인 우 부군수는 보은군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해 충북도청 기획관리실, 총무과, 행정국, 의회사무처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살려 군 발전을 위한 남다른 애함심으로 국·도비 확보에 발 벗고 나서는 등 보은군의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우경수 부군수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 민선 8기 최재형 군수의 당면한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영동군 충북도민체전 경기장 현장 점검 “이상 無”

충북 영동군이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종목별 경기장 일체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6일 정영철 군수는 개폐회식 장소인 영동군민 운동장 등 종목별 경기장 정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 군수는 대회기간 중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관람객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군은 도민체전을 앞두고 27억 5000여만원을 투입해 경기장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경기장인 영동군민 운동장의 전광판 설치, 육상트랙보수, 야외무대 조명 설치, 도색, 음향설비 보수, 관람석 설치를 비롯해 운동장내 사무실의 리모델링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이외 실외테니스장, 소프트 테니스장 강도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도 대대적인 경기장 정비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회 경기장 정비 공정은 90%를 넘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오는 4월말까지 경기장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영철 군수는 “경기장별 빈틈없는 정비를 통해 모든 선수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살맛나는 영동, 하나되는 충북’을 슬로건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영동군민운동장 일원에서 열리며 26개 종목에 4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올해 도민참여예산제 150억 규모 운영

제1차 충남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총회...역량 강화 교육 병행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효신 도민참여예산위원장을 비롯한 제4기 도민참여예산위원,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총회는 올해 운영계획 보고, 도민참여예산학교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올해 총 150억 원 규모의 도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정책사업 공모 분야를 일반, 청년(청소년 포함)으로 구분해 청년을 위한 정책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50억 원 중 도 정책사업 공모 일반분야에 40억 원, 청년분야에 20억 원을 배정했고,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에 70억 원,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에 20억 원을 배정했다.

공모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분야는 전반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연계 추진이 가능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일자리,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청년분야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부문에서, 시군 주민 생활 밀착은 사회적경제 및 보건복지 부문 등에서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은 주민자치와 읍·면·동 마을공동체 사업 위주로 선정하며, 7월까지 1차 심사를 마치고 8월 온라인 도민 투표 등을 거쳐 12월 최종 선정 결과를 공개한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도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제도 이해력 향상과 역



량 강화를 위한 도민참여예산학교 교육도 추진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도민참여예산 이론, 사업 제안 실례 활용제안서 작성 방법 등으로, 기본 개념과 예산 편성·집행 절차에 대해 강연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속 협력·소통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도정 참여를 부탁했다.

최정근기자

아산시, 주민자치회 비전 선포... 참여자치 시대 서막

박경귀 아산시장 “전국 최고 주민자치회로 참여자치시대 열겠다”



아산시가 6일 이순신빙상장체육관에서 주민자치회 출범 비전선포식을 열고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행복도시’를 향한 역사적 첫발을 내디뎠다.

2013년 당정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처음 전환한 아산시는 10년 만에 관내 17개 읍면동 모두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하고, 실질적 주민자치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주민자치회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자문·보조 기능에 머물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실질적 주민대표기구 역할을 하는 자치기구를 지향한다.

이날 박경귀 시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 통로이자, 주민께 실질적 자치 참여 권한을 드리는 풀뿌리

자치의 기반”이라면서 “주민이 직접 주인이 되어 참여자치를 구현하는 행복도시 아산으로 가는 위대한 걸음”이라고 자평했다.

주민자치회는 단순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총회를 열 수 있게 된다.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의제를 발굴, 협의할 수도 있다. ‘주민자치’라는 말 그대로, 내가 사는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산시는 이번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계기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을 정립하고, 마을 자치와 읍·면·자치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정과 협력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앞두고 2022년 11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아산시는 읍면동 순회 설명회, 주민자치 오프라인 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아카데미 교육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경귀 시장은 “이제 아산시는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산시 주민자치회가 참여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천안예술의전당서 14일 ‘충남교향악단×이택기’ 공연

천안문화재단은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충남교향악단×이택기-천안’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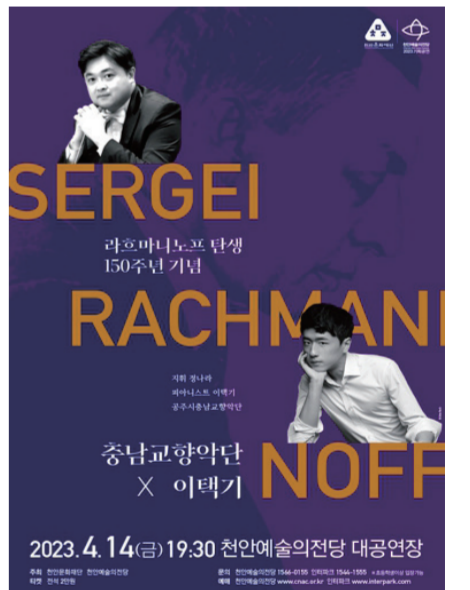
‘충남교향악단×이택기-천안’ 공연은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 라흐마니노프, 그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상임 지휘자 정나라의 지휘와 충남교향악단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택기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음악과 일생을 재조명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피아노 곡 중 하나인 알려진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과 러시아 낭만주의 교향곡의 최고 걸작으로 불리는 교향곡 2번이 연주된다.

공연 관람료는 전석 2만 원이다. 관람 문의와 자세한 사항은 천안 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정근기자



2023년 4월부터 안성시기가 어르신들의 교통비를 책임집니다!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안성시민
- 지원내용** 시내버스 요금 지원
- 이용방법**
 1. 농협에서 어르신 무상교통카드 신청
 2. 카드 충전하여 사용
 3. 분기별 현금 환급



안성시청교통정책과 031) 678.0754~0755

제9회 청주시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개최

농업발전 유공 우수농업인 표창 및 회원 화합행사 열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청주시연합회는 지역사회 농업·농촌발전 우수농업인을 선정하고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제9회 청주시 후계농업경영인 대회'를 7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범석 청주시장,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농업정책위원회 의원, 농·축협 조합장, 청주시 농업경영인회 회원 등 많은 인원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1부 행사로 우수농업인 시상식이 있었으며 오송읍 장태순·김남욱 부부가 30년간 농업에 종사하며 지역사회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주시장으로부터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창의상 옥산면 정연도, 조영의 부부, 자립상 내수읍 임성기, 김선의 부부, 노력상 가덕면 유승기, 유순자 부부, 협동상 북이면 조학래, 백영의 부부, 근면상 현도면 안경수, 김명선 부부, 자조상 오창읍 이만규, 원정옥 부부**가 각각 수상



의 영예를 안았다.

2부 행사는 체육경기·노래자랑·경품추첨 등 회원들 간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쌀값 하락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홍천 k-hops 국산 맥주 대표도시 브랜드를 만들다!

국산맥주 대표도시 육성! 홍천 k-hops 제5회 대한민국 맥주박람회 참가

홍천맥주가 지역농업과 청년창업, 도시재생이 연계된 매우 좋은 사례로 많은 시군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멸종된 줄 알았던 홍천 홉이 다시 부활하여 2015년부터 K-hops는 현재 홍천군 서석면 일대 9농가에서 약 20톤가량 재배를 하고 있다.

올해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증 준비하여 품질을 더욱 확고히 다질 계획으로 홍천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홍천이 '국산맥주 대표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에 홍천군은 지난 2022년 12월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서석면 용오름체험휴양마을에서 세계 수제맥주대회인 '2022 인터내셔널 비어 챔피언십'을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국산 홉의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필스너, 바이젠,골든에일, 스타우트 등의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남편 브라이언트 바흐 브루어리는 2021 월드비어어워드에서 홍천 골든에일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6일부터 열린 제5



회 대한민국 맥주박람회에 홍천군 서석면 강소농 회원 정운희씨가 출전하여 8일까지 맥주 특유의 향을 감미하는 홍천의 K-hops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국내산 홉(hops)은 강원도 홍천이 중심이라는 것과 '국산 맥주 대표도시'로서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홍천군은 앞으로 홍천맥주의 소비를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청년

창업의 기회와 일자리도 늘리고 관광자원을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해, 모두가 상생하고 자립 할 수 있는 핵심도시 콘텐츠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신영재 군수는 "토종홉인 k-hops를 바탕으로 홍천군만의 지역특화작물로 육성하여 6차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홍천맥주의 판로 개척 및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세나/기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두류수영장, 신속한 응급조치로 심정지 회원 구해

수영 강습 중 쓰러진 남성, 강사와 안전요원, 회원의 응급조치로 위기 넘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두류수영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남성의 생명을 강사와 안전요원, 수영장을 찾은 소방대원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했다.

지난 5일 오전, 수영장 내부에서 이룬 강습을 받던 40대 남성회원이 경련과 함께 쓰러졌다.

강습을 진행하던 강사와 안전요원이 이상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물 밖으로 남성을 옮기고 119신고 후 팔과 다리 등을 주무르며 마사지를 실시했다.

옆 레인에서 수영 중이던 상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방대원 유홍준 회원은 운동 중 이상을 감지하고 풀장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홍준 소방대원은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의식을 잃자 신분을 밝히고 남성의 호흡과 맥박을 살폈다. 남성

이 급성 심정지 상태임을 파악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수영장 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 맥박과 호흡, 의식회복까지 도왔다.

남성은 의식 회복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생명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욱 두류수영장 소장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4.4.)에도 수상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는데, 덕분에 직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라며 "유홍준 소방대원의 심폐소생술이 긴급 상황 속 큰 도움이 됐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강사와 안전요원,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실제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으로



▲유홍준 소방대

시민이 안전한 공공시설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 사과술 '춘희(春姬)' 대한민국 주류대상 수상

전통주 제조업체

(주)착한농부 6회째 수상

예천군 용문면 소재 (주)착한농부에서 새롭게 선보인 전통주 '춘희(春姬)'가 조선비즈가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주류 대상'에서 우리 술 증류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주류대상은 국내 대표 주류 시상식으로 70여 명의 전문 주류 시음단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로 우리 술, 소주, 맥주, 위스키, 스피릿, 와인, 사케 등 주종별 최고의 술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춘희'는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선에 위치한 백두대간 소백산 자락에서 귀농인 청년단체와 마을 주민이 함께 어울려 생산한 특별한 사과로 빚은 증류주로 사과



의 상큼한 향을 품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착한농부는 지난 2017년 오미자 증류주 '막시모', 2018년과 2019년 복분자 증류주 '예천주 복'과 '만월',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 단수 증류주인 '럼PHAT'과 '밀담'으로 각각 대상을 수상하며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 '춘희' 또한 대상을 받아 단술이 샘솟는 예천(醴泉)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상선 대표는 "대한민국 주류대상 10주년을 맞아 최대 규모로 개최된 대회에서 주류 대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더 좋은 전통주를 생산 하도록 노력하고 예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양질의 제품을 개발해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등 농가와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http://chunhyang.org

빛춘향, 빛을그리다

2023.5.25^목 ~ 5.29^월

제93회 **남원** 춘향제 Chunhyang Festival

·주최 | 남원시 ·주관 | 제93회 춘향제전위원회 ·후원 | 전라북도

의성풍력, 순풍에 돛단 듯 힘차게 날개짓 하다



지난 2015년 SK디앤디와 풍력발전소 설치에 관한 MOU 체결

김주수 의성군수,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SK디앤디 측, 친환경 에너지 선두 기업 입지 재확인에 큰 의미 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향후 2036년까지 최대전력 목표수요(118.0GW)에 맞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143.9GW의 실효용량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소수론자들이 풍력발전은 산림훼손·환경파괴의 주범이라며 환경부를 찾아가 농성을 벌이면서 결사반대를 주장해,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한동안 움츠러들었지만, 위에 언급 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최대전력 목표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풍력발전은 필수불가결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특히, 풍력발전은 탄소중립 실천에 크게 기여하는 물론, 향후 에너지 공급원이 무엇보다 절실한데다 각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세수의 최고 효자이자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예전보다 더 매력적인 사업으로 주목받아 각 지방자치 단체가 앞다퉀, 풍력사업에 앞장 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 지난 3월 4일, 영양군 무창리 소재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강풍을 동반 삼시간에 확산된 일이 있었는데, 산불 발생 1~2시간 만에 주불진화를 잡아, 3~4시간 만에 완전 산불을 진화했다. 이렇게 빠르게 진화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산불발생지역 정상에 설치된 GS제1풍력발전단지 덕택으로 아래에서부터 불을 끄고 올라가고 산정상인 위에서 불을 끄면서 수백 ha의 엄청난 산불피해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을 ‘완벽한 차단선 풍력’ 덕택으로 조기 진화를 할 수 있어 향후, 풍력은 유사시 대비에도 기여해, 보다 산림을 보존하는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을 현장 취재 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취재진은 대한민국 제계서열 2위인 SK그룹의 SK디앤디사가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과 옥산면에 풍력발전단지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올 3월 춘산면, 올 4분기 옥산면 일대에 추진되는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 취재했다.

먼저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의성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올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쾌지나 칭칭나네’가 의성군에 울려 퍼진다고 보면 된다.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세수 증대효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풍력발전이 지역민을 고용하므로 젊은 일자리 창출, ▲젊은 인재 외부 유출 차단과 인구 증가, ▲주민참여형 모델로 인해 지역민들이 지분을 투자해 주주 배당금을 받으므로써 해당지역 주민은 평생 연금 혜택 부여, ▲풍력발전의 전문적인 기계를 제외한 지역 건설업체가 동참함으로써 지역 업체 일거리 제공으로 동시활성화도, ▲군 세수를 활용한 의성군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등 유익한 점이 차고도 넘치게 될 것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 발전을 위해서라면 불철이라도 뛰어 들겠다”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난 2015년 9월, SK디앤디사와 MOU를 체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춘산면과 옥산면 일원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의성군이 추진하는 풍력은 지난 2020년 9월, 의성군 춘산면의 ‘풍백풍력발전단지’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22년 9월, 옥산면 ‘황학산풍력발전단지’도 실시계획인가를 각각 받아 춘산면 풍백풍력발전소

는 올 3월부터, 옥산면 황학산풍력발전소는 올 4분기부터 본격공사에 착수,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활발하게 추진된다.

의성군에 설치되는 풍력발전은 풍백풍력발전단지는 7기에 용량 약 35MW(5MW×7기), 황학산풍력발전단지는 16기에 용량 약 90MW(6MW×16기)가 설치돼, 의성지역 풍력발전단지의 총 발전량은 연간 약 20만MWh로 이는 의성군의 총 29,000세대가 약 2년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임과 동시에 탄소 중립 실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주원인인 CO2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그린에너지로, 풍백 풍력의 75MW 규모 전기 생산 시, 연간 58,000톤의 CO2 감축 및 30년생 소나무 약 630만 그루의 조림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여타 지방자치단체는 풍력설치 반대 소수론자들이 주민들을 선동하여 환경청을 찾아가 풍력은 산림환경을 가져오기에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반대논리를 펴고 있어 추진하는데 많은 장애를 겪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이곳 의성군은 지역주민들이 풍력발전소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다 의성군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리더십이 어우러져 풍력개발이 순풍에 돛단 듯 힘차게 항해를 해 나간다는 점은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는 일로써 향후 의성군의 지역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가져올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의성군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상반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을 지원받아 풍력발전단지 주변 지역에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주수 의성군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앞장서고 풍력발전단지를 관광자원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곳에 설치될 풍력발전단지는 타 풍력단지과 달리 당당히 제계 서열 2위인 SK그룹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 결코 실패할리도 없지만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지원 될 것으로 기대돼, 의성지역 주민들은 만사걱정을 불들어 매어도 좋을 만큼 너무도 완벽한 보증을 들은 것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 더욱 ‘기쁨배가 행복두배’가 아닐 수 없다.

잘 알다시피, 기존의 풍력발전은 개발업자와 기업주도형이었지만,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주주가 돼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모델로 바뀌어 지역주민들은 개발의 지분을 20년간 매월 배당받는 주주가 되는 것이다 보니, 해당지역 주민들은 매월 이익배당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과 같은 혜택이 주어

지기 때문에 깨어있는 지역주민들은 앞다퉀 풍력개발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K그룹 산하 SK디앤디사가 보유·운영 중인 풍력발전은 2015년 제주도 가시리 풍력, 2019년 울진풍력 등에 약 80MW 규모의 풍력발전으로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고, 이번에 착공한 풍백풍력을 포함하면 약 150MW가 확보되고, 올해 착공 예정인 의성풍력을 포함할 경우 풍력발전 규모는 총 약 240MW로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민간 풍력발전사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되는데다 SK디앤디는 매년 1개 옥상풍력발전소 착공과 함께 신안 우이, 인천 굴업도 등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김해중 SK디앤디 에너지솔루션본부장은 “이번에 설치되는 의성지역 풍력은 현재 운영 중인 가시리, 울진 두 곳을 합친 것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SK디앤디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선두 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입지를 다지는 데 의미가 크다”며, “SK디앤디는 전력중개를 필두로 신재생에너지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옥상·해상 풍력발전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은 춘산면과 옥산면에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의 풍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설치되는 풍력발전단지 지근거리에 살고 계시는 K오씨(남, 춘산면소재)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풍력설치를 찬성한다”면서 “도대체 이처럼 전력량이 부족한 이 시점에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는 풍력설치를 타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다니 참으로 이해불가이다”면서 “향후 풍력설치로 우리 마을이 보다 윤택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사측에서 우리 마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풍력발전단지와 지근거리에 살고 계시는 P오씨(남, 옥산면소재)는 “솔직히 돈 한푼 안내고 풍력을 찬성해준다고 우리 풍력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20년간 매달 연금을 받도록 해준다니 SK그룹에 깊이 감사할 따름이다”면서, 풍력발전소가 하루속히 설치돼, 정상운용을 통해 많은 전기를 일으켜 풍력업체도 살고 우리 지역민들도 살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지역민들은 늘 풍력발전회사가 많은 전력을 일으켜 수많은 가구에 전력이 공급되어 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할 정도로 이 풍력설치지역 주민들의 풍력에 대한 관심은 너무도 적극적인데다 이제 이곳 춘산면과 옥산면 풍력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다지게 됐다.



취재진이 바라 본 의성풍력은 의성군과 SK디앤디사 상호 궁합이 맞는 가운데 풍력사업이 전개돼, 큰 성공은 불보듯 훤히 일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것은「풍력발전 성공요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찬성이 필수적인데, 의성군에 설치되는 풍력은 여타지역 풍력 설치사와 달리 이 두가지 요소가 100% 충족된 가운데 설치되는 것이기에 의성군 풍력이 주는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SK디앤디사의 풍력발전소 설치가 원활히 잘 진행되는 가운데 순조롭게 완공돼, 상업운영에 들어가 SK디앤디와 의성군이 상호 ‘win-win’ 하는 결과물을 창출해 내기를 기원드리며 동시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SK디앤디사의 풍력발전이 전국적으로 더욱 날개를 달고 활발하게 추진되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윤근수 / 기자 ygs1162@naver.com

SK디앤디가 만드는 가치 있는 세상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

제 18회

영양
영양
산나물축제
산나물축제

YEONG 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기간
5월 11일(목)~
5월 14일(일)

장소
영양읍내 및 일월산일원

주최 | 영양군

주관 | YFTF 영양축제·관광재단

"image: Freepik.com". This cover has been designed using assets from Freepik.com